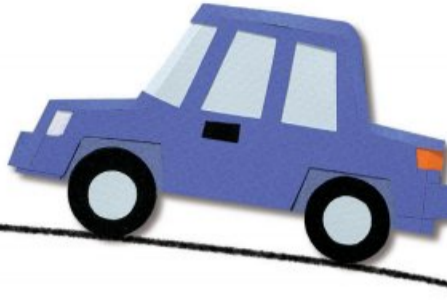


후 할인 대전 '한가위만 같아라'

업계 풍성한 9월 혜택

기아, 현대M카드 결제시 할부
현대차, 7월 이전 생산 차 할인
한국GM, 최대 36개월 무이자
쌍용차, 귀성비 최대 100만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업체가 풍성한 혜택을 내세워 '할인 대전'에 나선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달 각 브랜드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 선점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기아는 이달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 중에서 현대 M계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최저 2.5%(36개월)의 할부 금리와 가장 60개월(2.9%)의 할부 기간을 적용하는 'M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구매한 지 10~15년이 지난 노후차 보유 고객이 승용·RV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할인을 준다.

이밖에 스티어링 구입할 경우 36개월 동안 2.5% 저금리 할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유비 연간 최대 32만원 할인 등을 제공하는 스티어링 전용 구매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또 봉고·LPG 모델은 2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올해 7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차종에 대해 이달 10일까지는 30만원, 13일부터 17일까지는 15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넥쏘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이 신규 차량으로 넥쏘를 출고할 경우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여기에 쓰나미 구매 고객 중 직계 준비족이 쓰나미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고 이력이 있는 경우 가족

시트와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 60만원 상당의 '컴포트 I 옵션'도 무상 장착해준다.

특히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 출고를 3개월 이상 대기한 경우 다른 차종으로 전환 출고하면 구매 금액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넥쏘는 100만원, 아반떼·쏘나타·그랜저·코나·투싼 하이브리드는 30만원까지 할인된다.

한국GM은 트레버스,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와 현금 지원을 결합한 '꿈보 할부' 선택 시에는 트레버스 250만원, 말리부 18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8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또 트레버스와 2021년형 말리부 구매 고객에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년 이상 노후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르노삼성차는 SM6를 구매할 경우 한 단계 높은 트림(등급)의 차량을 제공하는 'SM6 프리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216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SM6 TCe 260 LE 모델을 선택한 경우, LE 트림 기본 사양에 운전석·동승석 파워 및 통풍시트, 10.25인치 컬러 TFT LED 클러스터, 긴급제동 보

조 및 차간거리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RE 트림 모델을 제공하는 식이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QM6를 구매하면 옵션과 용품, 보증연장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가솔린 모델(GDe)에 150만원, LPG 모델(LPe)에 5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전기차 모델인 '르노 조에'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1년 2만km를 무료로 주행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선불 충전 카드도 제공한다.

쌍용차는 티볼리·티볼리 에어와 코란도를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귀성비를 지원한다. 선수금 없는 더블업 스페셜 할부(최대 72개월·3.9%)로 구매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 뉴 렉스턴과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도 스페셜 할부로 구매하면 50만원의 귀성비를 지원한다.

또 7년 이상 된 쌍용차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올 뉴 렉스턴을 구매할 경우 30만원, 코란도와 티볼리·티볼리 에어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지난 차량 보유 고객은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더 2022 스티어링' 달린다

본격 판매 돌입...3878만원~4756만원

기아가 6일 '더(The) 2022 스티어링' (사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2022 스티어링은 기아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스티어링 마스터의 연식변경 모델로, 신규 기아 엠블럼 적용과 영국의 애스코트(Ascot) 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 색상 '애스코트 그린'을 추가 운영한다.

기아는 엔트리 트림 '플래티넘'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레인센서와 후드 가시성을 기본 적용했으며 상위 트림 '마스터즈'에는 7인치 클러스터와 프로

젝션 LED 헤드램프,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를 기본 화했다.

이밖에 스티어링의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디자인 특화 트림 '아크로 에디션'과 리어 스포일러도 신규 운영한다.

최고·정점(Acro), 무채색(Achromatic)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크로 에디션은 19인치 디자인 휠과 블랙 스페이드 헤드라잉, 크래쉬패드·도어 센터트립 스페이드 감싸기, 체인 볼륨 패턴 스페이드 시트 등을 적용해 실내·외 고급감을 높였다.

더 2022 스티어링 판매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플래티넘 3878만원 ▲마스터즈 4275만원 ▲아크로 에디션 4388만원이다.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GT 4678만원 ▲아크로 에디션 4756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2022 스티어링은 고급스러움과 역동적인 요소를 더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함께 준비한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의 가치를 경험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미니 밴' 기아 카니발 질주

출시 1년만에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승용차 누적 2위

기아의 신형 카니발(사진)이 출시 1년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6일 현대차 실적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올해 8월까지 10만1060대가 판매됐다.

지난해에만 4만3523대가 판매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5만7537대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승용차 모델 중에서는 올해 누적 판매량이 그랜저(6만1762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판매량은 5611대로 1위를 차지한 기아 스포티지(6571대) 다음으로 많았다.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사전계약 첫날 2만3000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한 신형 카니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꾸준히 매달 5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니발이 가성비와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현대차 스타리아, 혼다 오딧세이, 도요타 시에나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고 보고 있다.

특히 4세대 카니발은 기존 모델보다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첨단 기능들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4인승부터 7인승까지 시트 구성을 다양화



해 패밀리카부터 업무용 차량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점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11월에는 의정부이나 고급 패밀리카로 활용될 수 있는 하이리무진 모델이 추가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최고급 모델인 하이리무진 4인승이 출시되면서 라인업이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박'(차+숙박)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의 인기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카니발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국내 미니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판매량이 6년만에 1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산 미니밴은 지난해까지 카니발 5만7537대, 스타리아 1만5275대, 스타렉스 7192대 등 총 8만4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4만9040대)에 비해 63.1% 늘었다. /연합뉴스



'토요타 GR 수프라 레이싱 클래스' 개최

토요타코리아는 최근 4일 강원도 인제 스피드움에서 GR 수프라 고객을 대상으로 '토요타 GR 수프라 레이싱 클래스'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클래스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 일정에 맞춰 레이싱팀 '아트라스 BX(Atlas BX) 모터스포츠'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운전 테크닉 이론교육 ▲실전 서킷주행교육 ▲GR 수프라 스톱카(Stock car) 관람 등 전문 드라이빙 인스트럭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운전이 주는 최상의 즐거움'을 컨셉으

로 정통 스포츠카 '토요타 GR 수프라'를 출시한 토요타코리아는 국내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의 레이싱카에 GR 수프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는 공식 카울(COWL)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토요타 GR 수프라 고객들이 차량의 성능과 특성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모터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9월10일 OPEN

첨단 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1661-4470

확이확이!

남다른 투자가치와 미래형 첨단 업무시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과 다양한 세제혜택!
10만여 배후수요를 가진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 분양가 9,900만원의 프리미엄 오피스

✓ 실투자금 1,000만원이면 나도 건물주

✓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취득세 감면)

✓ 주택수 미포함 (대출 최대 90%까지)!!

분양홍보관: 광주서구 상무중앙로 110 (지평동 1213번지) 우체국보험회관 1층

지식산업센터 **1661-4470**

지식산업센터

■ 대지: 1000㎡ (3000㎡) | 연면적: 1000㎡ (3000㎡) | 층수: 10층 | 주차: 100대 (3000대) | 용도: 지식산업센터 (제2종) | 위치: 광주서구 상무중앙로 110 (지평동 1213번지) | 교통: 광주서구 상무중앙로 110 (지평동 1213번지) | 문의: 1661-4470